

초등생 과일간식, 이젠 친환경 용기로

농식품부, 기존 용기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량 교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컵)를 이달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량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전국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학부모 96%, 학생 90.2% 만족)가 매우 높게 나왔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함께 국산제철과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Win-Win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교사 및 일반국민들은 과일 간식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부정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과일간식 용기는 개인별로 제공되는 플라스틱컵, 파우치와 학급별로 제공되는 벌크용기가 있으나, 관리의 편리성으로 컵과일 또는 파우치로 대부분 공급되고 있어, 플라스틱(컵, 파우치)이 연간 약 720만개가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교육현장 등 우려에 공감하여, 지자체와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생분해 플라스틱(PLA)으로 전량 전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한국화학회연구소, 과일간식 공급업체

등과 기술·정책 협의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전환을 추진했고, 이는 2019년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사례로도 선정되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강도가 약하고 열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나, 36시간 내에 냉장으로 공급되는 과일간식 용기로는 적합하다. 기존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다소 높으나, 친환경 용기전환 필요성에 지자체 및 공급업체도 적극 공감하여 추가 단가인상 없이 생분해 플라스틱컵으로 9월부터 공급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개선은 농식품부·행안부 공동 개최한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2019. 7. 23.)'에서 2019년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5선 중 우수사례 1위가 되었다.

농식품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 전환을 통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높



은 만족도와 사업성과를 기쁘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과일간식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NH 전북본부, 찾아가는 주거지원 서비스 시행

N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2일 대학 개강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주거문제로 고민이 있으나 NH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다.

이날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거지원제도와 주택별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등을 설명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청년층 주거지원제도의인 NH청년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만39세 이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취업자)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N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NH전북본부는 하반기에 약 12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지원가능 금액은 8천5백만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은 전세보증금 100~200만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1~3%이지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본부 전세임대 상담센터(1670-2596)를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간담회 큰 호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달 30일 정규직 전환 공무원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시설, 보안, 환경) 대표 10명인 한 자리에 모여 ▲공무직 수당 신설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탄력적 조절 ▲업무 환경 및 휴게 공간 개선 건의

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A환경주임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연금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고, B환경주임은 "공무직내 갈등이 정규직 전환이후 해소되고 화합하여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이뤘으며, 앞으로는 복리후생부분의 차등도 점차 해소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보안·환경직 263명, 시설직 119명, 콜센터직원 331명, 기간제근로자 등 518명을 포함 총1,231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전 조성완 사장, '제로페이 챌린지' 동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조성완 사장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의 사용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제로페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 최규하 원장의 지령으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조성완 사장은 지난달 30일, 전북혁신도시 본

사 인근의 한 커피숍을 찾아 직원들과 환담을 나눈 후 제로페이로 직접 결제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점에 있는 제로페이 QR코드를 촬영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 챌린지'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SNS에 인증해 올리며 후발주자를 지명해 이어가는 캠페인이다.

조성완 사장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돌려주는 '제로페이' 사용에 공사 직원들은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장년의 당당한 인생 2막 포문을 열다

경진원, 중장년 창업교육 개강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일 4050세대 의 품격 있고 당당한 인생 2막의 나래를 펼치기 위한 '중장년 창업교육 6기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2015년부터 실시한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북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기

초 및 전문 과정 교육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자 육성에 목적이 있다.

교육은 두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기초과정은 2일(월)~9일(월) 6일간 창업절차 및 분야별 내용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며, 창업전문과정은 창업기초과정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업종별 전문교육 및 1:1 전담멘토링을 9월 16일(월)~10월 14일(월) 17일간 진행된다.

교육 수료생은 창업 후 개인 신용등

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창업기초과정 수료시 최대 2천만원, 창업전문과정 수료시 최대 5천만원의 창업자금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한 창업전문과정 수료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최우수 수료생 1명을 선정하여 최대 4백만원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며, 교육 수료생은 창업초기 경영안착을 위해 시제품 제작, 영상 홍보, 사업화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김윤상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00년 은행'

전북은행,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기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기원 정기적금 특관을 실시한다.

이번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 계약기간은 2년, 3년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은 10만원 이상 20만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급여이체, 연금이체,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 및 계약기간내 거점역 선정 여부에 따라 최고 0.8%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연 2.55%이다.(3년기준) 단, 우대조건에 의한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적용되며, 계약액 기준 100억원 소진시까지 관매 예정이다.

또한 전북은행은 특관 첫날인 2일, 익산역 인근에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을 염원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익산시 제2금고

(특별회계, 기금)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서 익산시의 주요 시책사항인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에 적극 호응하며, 지역민과의 유대감 형성에 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 익산 지역 직원 50여명은 출근길 익산역 인근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약 30분간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은행 익산지역금융센터 김병조 센터장은 "지역 은행으로서 익산시가 추진하는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이른 추석, 구매패턴 달라... 출하전략 필요

추석 전 농산물 구매 시 소고기, 감귤, 바나나는 늘고 포도, 복숭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른 추석 시 멜론, 복숭아, 포도 구매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일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자료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9년간 추석 전 농산물 구매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소고기, 감귤, 바나나는 늘고 포도, 복숭아는 줄었다.

또한, 이른 추석 시 멜론, 복숭아, 포도 구입액이 증가하였으며 사과, 배의 경우는 연도별 추석 시기에 따라 구매패턴이 달라 이를 반영한 출하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추석 전 2주간 구입액 상위품목 중 소고기, 감귤, 바나나는 늘고, 포도, 복숭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소고기는 39.4%, 감귤은 68.8%, 바나나는 40% 증가했으나, 포도(-26.5%), 복숭아(-30.8%)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선물의 단골 상품인 홍삼제품의 구입액은 '10~'12년 평균 1,625원에서 '16~'18년 3,121원으로 약 92% 증가하여 가공식품 중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난 명절 농식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이한 것은 명절에도 즉식밥, 조리된 양념육 등 소고기 가공품, 즉식·냉동식품 등의 구입액이 명절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식밥의 경

우 지난 9년간 약 39.4% 구입액이 늘었다. 추석이 빠른 올해 소비자들이 추석에 구매를 늘리려는 품목은 사과(25.3%), 소고기(15.5%), 배(15.2%) 순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지난 9년간 추석이 빠른 경우에 멜론과 복숭아, 포도 구입액이 증가하고 사과·배 소비패턴은 추석 전 구매가 급증한 후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빠른 추석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면, 구매품목의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기출하에 따른 품질에 대한 의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른추석에 따른 과일의 품질불량을 걱정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당도, 덜 익음 등 주로 맛과 관련된 품질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제수용품으로 멜론, 바나나, 수박, 외국과일 등 새로운 품목이 이용되고 있고, 추석 선물세트 구입 시 과일은 혼합세트보다는 단품용, 가공식품은 혼합세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산경영과 우수순 과장은 "지난 9년간 비교했을 때 추석 농식품 구입품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추석 시기에 따라 소비품목이 변하고 있다"면서 "추석 명절 특수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